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이 때부터 한편으로 시위주동자를 물색하면서 또 한편으로 학교간 연대선이 연계되기만을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는 답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었고 시위 일정을 계속 늦출 수는 없었기에 이내영 군과 들만으로 결행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는 휴학을 해 놓고 마지막으로 절친했던 법대 동기들이 고시공부를 하고 있던 마곡사로 하직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마곡사 뒤 계곡에서 밤새도록 술을 퍼먹고 나는 얼마 있으면 감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라는 말을 남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내영 군을 만나 시위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들어온 이튿날 허망하게 검거되고만 것입니다.

두서없는 제 글을 이쯤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애깃거리로 따지자면 무궁무진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다 옮길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학비재하여 멋진 글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작은 기록들이 밑거름이 되어 옛 동지들과 다시 한번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세대가 역사의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시절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문제의식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77년 10월, 백양로와의 작별



노영민_ 연세대 경영학과 76학번. 우리밀살리기운동 총북본부 대표, 민주개혁국민연합 총북연대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행정수도이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청주 흥덕을(현))

70년대 후반의 시대상황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조차 한순간에 거리의 투사로 돌변시키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가장 투쟁적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76년에 대학에 입학했던 나는 지극히 평범한, 아주 상식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민족과 역사를 논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그 현실과 상식이 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 지은 바오로6세는 스스로를 '종들의 종'이라고 즐겨 칭했는데 우리 국민은 다른 의미에서 '종의 종들'이었다.

우리는 노예였다. 나는 나의 운명과 미래의 고삐를 내가 쥐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나의 운명의 고삐는 독재자의 손에 있었고 나는 전혀 주체적이지 아니었다. 우습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개정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청원할 권리도 없었고 그러한 조항이 들어있는 긴급조치9호의 해제를 주장할 수도 없었다. 그 모든 행위는 엄청난 범죄행위였다.

유신체제는 공고해 보였고 우리 국민은 현실과 상식에서 벗어나 눈을 감든지 아니면 싸울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이었던 나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었다. 너무 현실적이었기에 민족과 역사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너무 상식적이었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게 되었다.

연세대의 75년 4월 3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총장을 위시한 학교당국과 학생이 한편이 되어 독재정권에 정면도전한 날이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김찬국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을 당시 박대선 총장이 문교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복직, 복학시킨 것에 대해 문교부가 연세대에 계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박대선 총장이 사임을 발표하고 학생들은 시위에 돌입한 날이다.

이 시위는 연세대 개교 이래 최대의 시위였으며 그 후 수십 명의 학생이 무더기로 제적된 후유증으로 연세대 학생운동은 그 명맥을 잇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S·C·A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앙심 깊은(?)' 후배들의 만남은 이 공백을 차곡차곡 메워나가게 되었다.

나는 행운아였다.

지금도 우정을 나누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이때 만났다.

하늘을 나누어도 서운하지 않을 친구들이다.

김거성, 강성구, 박성훈, 우원식, 공유상, 오성광, 장신환, 윤후덕, 허욱, 이상훈, 서한석 등이 그들이다. 우리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토론을 통해 인식을 공유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성숙해갔다. 더불어 유신체제도 성숙해갔다.

77년 10월 유신체제는 그 절정기를 넘어가고 있었다. 체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10월 7일 서울대 사회학과 심포지움에서 터져나온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시위는 이제 우리의 투쟁이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전환할 힘이 비축되었다는 신호였다.

이제 유신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선언이 필요하며 이를 학생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고 나는 믿었다.

문제는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풀 수밖에 없는 법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의사를 밝혔고 친구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갈 나를 위해 “금관의 예수”를 불러주었고 기도해주었다.

나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을 읊조리며 눈시울이 뜨거웠다.

10월 11일 저녁 김동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던 약수동 형제교회에서 철필로 등사지에 원고도 없이 손가는 대로 구국선언서를 써나갔다.

“3.1운동 때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학우여,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싸웠던 학우여,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역사의 부름을 받고 있다…”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다듬어서 쓸 걸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그때는 그럴 정신도 없었다. 담담 하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렀으나 긴장이 되었던 모양이다. 선언서를 다 쓰고 나서 내가 다녔던 수도교회의 김상근 목사님께 나의 심정을 담아 편지한통을 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10월 12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큰 보따리에 구국선언서를 담아 학교로 향했다.

가을빛이 완연한 캠퍼스였으나 나에게에는 보이지 않았다.

우체통에 어제 썼던 편지를 넣고, 혹시 형사들에게 의심받지 않을까 주위를 살피며 켜 걸음으로 씨클 사무실로 향했다.

걸으면서 이왕 하는 거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곳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혹시 외로웠던 것은 아닐까?) 김거성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같이 하자고 전했다. 나는 대강당 채플을 맡을 테니 거성이는 신과대 채플을 맡아 달라고 했다. 거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고는 나의 제의를 수락했다.

오! 하느님 이런 친구를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977년 10월 12일 12시 40분, 채플을 마친 공대생 1,000여명이 대강당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백양로의 가을은 은행나무에서 먼저 찾아온다.

회광반조(迴光返照)인지 은행나무잎은 노랗게 물들면서 빛을 받하기 시작했다.

대강당 주변은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학생들과 늦게 점심을 먹으러 가는 학생들, 그리고 채플을 마친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 가을과도, 백양로와도 이별이구나

나의 행동은 분명히 옳은 행동이며, 이 나라의 민주화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 등 순간적인 상념이 무수히 교차하며 떠올랐다 사라졌다.

대강당 3층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유인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도 어린시절 비행기가 뿌리던 전단지를 주우러 사지사방을 뛰어다녔던 때가 문득 떠올랐다. 픽 웃음이 나왔다.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얼마나 외쳤는지도 모르겠다. 있는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데 밑을 보니 학우들은 꽤 놀란 모양이었다. 지난 2년간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나는 학우들의 놀란 눈과 행동에서 이제 나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했다. 뒷일은 남은 자의 몫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교도소로 가면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사복형사가 늦게 나타났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사복형사들이 밑에서 계산한 층하고 실제 내가 있던 층이 달라서 엉뚱한 곳에 갔다가 부랴부랴 다시 내려가서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느라 늦었다는 것이다.

사복에게 제압당한 후에야 거성이가 떠올랐다. 잘 했겠지. 거성이니까

이렇게 해서 학자를 꿈꾸고 대학에 입학했던,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던 나와 김거성은 연세대의 긴급조치9호 최초 구속자가 되었다.

이 시절을 회상하며 시 한편을 썼다

- 회 상 -

사랑의 표현은 분노여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게 분노한 사람은
작게 사랑한 사람이었고
크게 분노한 사람은
크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분노한 사람은
모두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아무에게도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하늘에 닿은 사람은
사랑이 하늘에 닿은 사람이었고
분노가 호수의 물결로 일었다 사라진 사람은
사랑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그 깊이만큼 흔적이 남았습니다
말로서는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던 사람은 말을 잊었고
글로서는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던 사람은 펜을
놓았습니다

불꽃보다 더 뜨거운 사랑에
육신을 벗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깊이만큼 변했습니다.